



〈야당출신〉 여소야대... 20대 국회의장에 정세균



국회의장 선출 투표 결과 총 287표 중 274표 당선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정 의원은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실시된 국회의장 선출 투표 결과 총 287표 중 274표를 얻어 당선됐다. 정 의원은 수락연설에서 "지금까지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조정자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의장으로 유능한 갈등 관리와 사회통합의 촉매 역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집이 아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20대 총선 민심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다당제 하에서 국회의장에게 부여된 막

중한 소임에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제 국회도 책임정부 이상으로 책임의회를 지향해야 한다"며 "단순히 견제하고 감시만 하는 역할에서 머무르지 않고 국정 의 당당한 주체로서 부여된 권한을 적극 행사 하되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는 협치의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총회에서 총 121표 중 71표를 얻어 문희상·박병석·이석현 의원을 누르고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2면에 계속>

교사가 인증서 불법 도용해 학생부 무단 정정

대구시교육청, 즉각 형사고발 특별조사반 편성 전수조사 해

대구 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동료교사의 나이스 인증서를 불법 도용해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학생 동아리 활동 내용을 무단으로 정정 입력한 사실이 밝혀졌다. 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자신이 지도한 동아리 학생 105명 중 30명의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부분의 4개 영역 가운데 자신이 입력하거나 수정할 권한이 없는 '자유활동' 영역과 '진로활동' 영역 등에서 내용을 무단으로 정정 입력했다.

이 과정에서 A 교사는 평소 친분이 있고 당시 나이스업무를 담당하는 동료교사인 B 씨의 나이스 인증서를 불법 복사해 무단으로 사용했다. 대구시교육청은 A 교사의 비행이 확인되자 이를 중대사안으로 보고 즉각 형사고발하고 학교재단 측에 엄중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해당 학교의 2014~2015 학년도 전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A 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 까지 학생 30명의 학생부 자유활동 영역과 진로활동 영역 등 총 39건을 수정 권한 없이 무단으로 정정 입력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학생부의 '교과성적' 영역은 시스템

상 불법 복사한 인증서로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조사결과에서도 교과 성적에는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무단으로 정정 입력한 대상 학생 중에는 졸업생은 없었다. 대구시교육청은 A 교사의 행위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학교에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이스를 총괄 관리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의뢰해 교직원 인증서 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일반교의 학생부 관리 실태에 대한 세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나이스 인증서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각급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나이스 인증서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9일 오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15회 대구음식관광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제과제빵 경연대회 출품작을 살펴보고 있다. 대구음식관광박람회는 12일까지 열린다.

이정백 상주시장 주민소환 무산

투표 청구 서명인원 미달로 이정백(사진) 상주시장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서명인원 미달로 무산됐다. 주민소환 투표 청구에 필요한 법정 서명인원 1만 3146명(유권자 8만7640명의 15%)에 237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시민 석종진 씨는 지난 2월 △상주시의 한국타이어에 대한 13억원 배상 판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주시 공무원 청렴도 등을 이유로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신청하고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그러나 1만2909명이 서명하는데 그쳐 주민소환 청구는 무산됐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9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 시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사상 최저 금리 인하... '머니 무브' 후폭풍 뒤따르나

예금은 줄고 고수의 쫓을 듯 소비투자가 이어질까가 관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연 1.25%로 전격 인하했다. 시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가늠해 보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우선 사상 최저 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은행 예금 금리보다 위험성은 크지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동이 대거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늘어난 통화량이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 더 큰 버블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의 부실 여신으로 충당금 폭탄을 맞은 은행은 1%대의 최저금리에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올해 1분기 국내 은행들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저금리 여파로 예대

마진(대출금리와 수신금리간 차이)이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예금은행의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44%로 전월대비 0.06%p 하락했다. 지난 3월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떨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로 예대마진 이익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주주의 체납인 이자이익이 줄어드는 한 은행의 수익성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이익이 줄어들면 다른 쪽으로 수익구조를 창출해야 한다"며 "낮은 금리로 고수익을 쫓는 투자자도 더 늘어날 것이다. 경영전략을 다시 짜야 할 시기"라고 토론했다. 금리 인하로 늘어난 통화량이 경기 부양 효과를 내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가계부채 문제를 키우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동반한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관련기사 10면>

대구에서 국내 첫 팔이식 수술 추진

대구시는 메디시티 대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구를 대표할 새로운 의료기술로 팔이식수술(Hand Transplantation)을 선정하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팔 이식은 팔이 없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수술로 뇌사자의 팔을 기증받아 혈관을 연결하고 피부와 근육, 뼈, 연골, 골수·신경 등의 여러 가지 조직을 혈관경을 이용해 개체 간에 전이하는 복합이식수술이다. 팔이식수술은 1964년 남미에서 처음 시도됐으며 1999년 미국에서 성공하는 등 지난 10여년간 전 세계적으로 약 20건의 팔이식수술 성공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가 팔이식을 미적·외관상의 문제를 해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하고 유효한 신의료기술로 인정했다. 대구시는 국내 첫 팔이식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세계의료시장에서 메디시티대구 이미지 확고히 다져 외국인환자 유치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세계적인 권위자인 W병원(병원장 우상환)과 영남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최병연)으로 수술팀을 구성했으며 오는 15일 오후 2시 대구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팔이식 수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축산업 허가제 확대시행

- 축산업 허가·등록제 적용시기
- 기존에 등록된 50㎡ 이상의 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는?
 -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2016.2.23.~2017.2.22.(1년이내) 허가요건을 충족해야 함
 - 신규로 가축사육업을 시작하는 농가는?
 - 의무교육(24시간)을 반드시 이수하고 허가기준을 갖추어 관할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은?
 - 2016년 4월 3일부터 10㎡이상의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는 의무 교육(6시간) 이수 후 가축사육업을 등록해야 함
 - 닭, 오리 등 가축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상인은 의무교육(6시간) 이수 후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해야 함.

축산업 허가 기준		사육시설	가축사육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소독시설		차광·대인소독시설, 차량진입 차단막
	방역시설		신발 소독조, 방문차량 소독실시 기록부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릿수	한우(방사식)	7.0㎡/마리	330㎡ 47마리
	정소(계류식)	8.4㎡/마리	330㎡ 39마리
	돼지(일관경영)	0.79㎡/마리	330㎡ 410마리
	산란계	0.05㎡/마리	330㎡ 6,600마리
위치기준	제한		산란육성계(0.025㎡/수)
			9마리/㎡, 330㎡당 2,970마리
			33kg/㎡, 330㎡ 7,270마리
			육용오리 0.246㎡/마리, 330㎡ 1,340마리
			지평도 이상 도로 30m 이내
			도축장, 사료공장, 종축장 등 500m 이내

2016년 영덕군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 2016. 6. 21. ~ 6. 23. (영덕물진축협)

무허가 축사를 '18. 3. 24일까지 적법화 하세요!!

무허가 축사?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라 신고, 허가 및 변경 신고·허가 준공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절차

- ① 불법건축물현황 측량을 통하여 측량성과도 발급**
 - ↳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및 측량설계사무소에 연락하여 측량
- ② 불법 건축물 자진신고**
 - ↳ 측량결과에 따라 불법건축물에 대해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 및 건축, 가축분뇨처리시설, 산지전용 등 신고, 허가, 준공서류를 첨부하여 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
- ③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
 - ↳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발부시 20일 이내 납부
- ④ 건축물(가설건축물)신고, 허가 및 변경**
 -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
 - ↳ 현부지의 견폐율을 고려하여 견폐율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일반건축물로, 초과할 경우 가설건축물로 개축 또는 견폐율 초과부분 철거
 - 배출시설 신고, 허가 및 변경신고, 허가를 아니한 시설, 건축물(가설 건축물) 적법화 시 육시설 증가에 따른 배출시설 증설이 필요한 경우
- ⑤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문의처: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 건축담당(730-6352)
 북함민원담당(730-6145)
 영덕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담당(730-6281~3)

‘양날의 칼’ 쥔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 “20대 국회는 온건함만으로 충분치 않아”

강한 국회 운영 의지 내비쳐

는 최선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야당 편 들면 여당 반발 불보듯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야당의 국회의장 후보에 선출됐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투표를 거쳐 향후 2년간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에 선출될 것이 확실시 된다.

하지만 16대 국회이후 14년만에 탄생되는 야당 출신 국회의장인 정 의원의 앞날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여소야대 국면인데다 내년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과연 임기동안 여야의 극한 충돌을 잘 조율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국회의장 선출 투표’ 결과 당선을 확정지은 뒤 당선 소감을 밝히며 “여소야대 20대 국회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많은 의원들이 나에 대해 온건하다는 평가를 하지만 20대 국회는 온건함만으로 충분치 않을 것이다. 때로는 강경함이 필요할 것”이라며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국회 운영을 통해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헌신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이처럼 ‘강한 국회 운영’을 선언한 것을 놓고 여당에서는 벌써부터 ‘선명 야당’ 식의 국회운영을 예고한 것이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만일 정 의원이 의장 임기 시작점부터 강한 국회를 위한 시동을 건다면 여야간 협의가 되지 않는 민감한 쟁점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 청문회법이나 세월호특별법 등이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에 여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장외투쟁 등

의 카드마저 꺼내든다면 국회는 파행되거나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여야간 극한 충돌이 주원인으로 대두되겠지만 원만한 국회 운영을 하지 못한 국회의장에게 화살이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반대로 의장이 새누리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경우에도 친정인 더민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 당장 야권에서는 “어느 당 출신이냐”고 정 의원을 공격할 게 분명하다.

정 의원은 이를 감안한 후 후보 당선 소감을 통해 “잘 할 때는 성원을, 잘못할 때는 매서운 질책을 해주길 바란다”며 “지금 이 순간 초심을 잃기 마지막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라고 부탁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의 선출 시점부터 정 의원은 양날의 칼을 쥐게 되는 것이다.

뉴시스

20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많은 의원들께서 저에 대해 온건하다 평가해주시는데, 20대 국회는 온건함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라며 강한 국회 운영의 의지를 내비쳤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의장 후보 당선인사에서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국회운영을 통해서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헌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잘할 때는 성원을, 잘못할 때는 매서운 질책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지금 이 순간의 초심을 의장 임기 마지막 날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장 도전 배경과 관련, “제가 꼭 의장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국가와 국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

심재철 부의장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담아낼 것”

새누리 심재철, 국회부의장 확정
심재철 272표 중 237표 획득



20대 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선출됐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실시된 국회부의장 선출 투표 결과 총 272표 중 237표를 얻어 당선됐다.

앞서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총 113표 중 과반 득표에 성공해 김정훈 의원을 누르고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20대 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9일 “대의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소임을 다할 것”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실시된 국회부의장 선출 투표 후 수락연설을 통해 “국

민과 역사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국회는 이념과 정쟁의 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국민 주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발걸음을 70년 간 해왔다”며 “20대 국회는 다양성에 기반한 더 적극적이고,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이뤄지는 민주주의 장으로 거듭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달라진 눈높이,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협치로 제어해나가고 국회가 헌정사에서 밝은 모습의 미래로 남도록 국민과 함께, 여러 의원들과 함께 차근차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앞서 실시된 부의장 선출 투표에서 총 272표 중 237표를 얻어 당선됐다.



20대 국회의장단 3명, 호남 출신이 싹쓸이

한 지역 출신들이 석권한 사례는 사실상 처음

됐다. 새누리당에선 5선 심재철 의원, 국민의당에선 4선 박주선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심 의원은 광주 출신으로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운동을 주도했으며 16대 총선에서 경기 안양에서 당선된 뒤 20대까지 내리 5선을 했다.

박 의원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16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을 거쳐 검찰에서 서울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등 요직을 거쳤고 2000년 16대 총선에서 광주 동·남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 18·19·20대에서도 당선됐다.

국회 관계자는 “호남뿐만 아니라 한 지역 출생자들이 이렇게 국회의장단을 석권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주선 “상대방 말을 경청하는 국회 되도록 노력”

박주선, 244표 중 230표 획득
“정치에는 묘수가 없고 품수 안통해”



20대 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4선의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선출됐다. 박 신임 부의장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국회부의장 선출 투표 결과 총 244표 가운데 230표를 얻어 당선됐다.

박 부의장은 수락연설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장이 이제 시작됐다. 20대 국회는 국민이 바라는 협치의 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한다”며 “이런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하고픈 말 대신 상대방 말을 경청하는 국회, 내가 바라는 100%만을 고집하

는 것이 아니라 10%라도 진전된 합의를 만들어 내는 국회, 다수 의견 따르되 소수의견이 존중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부의장은 “정치에는 묘수가 없고 품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면서 얻은 교훈”이라며 “산을 만나면 길을 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 각오로 20대 국회를 소통과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부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조배숙 의원을 제치고 야당 몫인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새누리당 임윤선 비대위원, 연일 ‘가벼운 입’ 논란

당 혁신에 대한 청사진 제시는 없어…비난 자초



그는 김 위원장을 소개하며 “조금이라도 젊게 보이고자 넥타이도 빼고 오셨다”라고 했고, 정 원내대표는 “이 분은 정말 키도 크고, 잘생겼지만 말씀도 잘 한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총선 참패 후 청년들의 쓴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서 당 지도부 자력으로 참성한 임 위원이 또래들에게 ‘큰 언니, 큰 누나’를 운운하며 키크고 잘생겼다는 식의 인물 폼평이나 한 데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란 지적이 나왔다.

총선 참패의 원인을 듣고 고개를 숙여도 모자란 판에 가벼운 농담 식 대화를 이어갔다는 것에 대해 일부 참석자들은 얼굴을 찡그리기도 했다.

임 위원의 가벼운 입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비대위가 열린 첫날 회의에서도 “새누리당은 아주 아주 정말 매력 없는 이성이다. 현재 능력도 없다”며 “능력이 없으면 미래 비전이 보여야 하는데 그것도 안 보인다. 그럼 성격이 좋아야 하는데 만나 새누리당이 젊은 층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들었다.”

간담회 사회를 맡은 임 위원은 “지금까지 비대위 회의할 때 제가 늘 막내인 것이 은근히 부끄러웠는데 여기 왔더니 명함도 못 내밀겠다”며 “30대 중 한명으로 중장년과 함께하다 제 또래 친구들과 만나니 너무 좋다”라고 운을 뗐다.

임 위원은 이어 “제가 사회를 맡은 김에 새누리당 혁신비대위 이런 간담회 때고 큰 언니, 큰누나가 와서 진행해 줄테니 편안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해달라”라고 했다. 임 위원은 김혁숙 비대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를 소개하면서 특유의 독특한 언사를 이어갔다.

뉴시스

국민의당, 이틀치 세비 2872만원 반납

원구성 법적기일 넘긴 시점부터 계산

국민의당은 원구성 협상 법정시한 초과에 따른 이틀치(7, 8일) 세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원구성 법정시한을 넘긴 지난 7일부터 세비 반납 시점을 정해 의장단이 선출되기 전인 8일까지의 세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의원 1명의 세비는 연(年) 액 기준으로 1억3796만1920원으로 의원 1명이 하루에만 37만7977원의 세비를 받는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38명의 의원이 이틀치인 2872만여원을 반납하게 됐다.

국민의당은 의원들의 개별 서명을 받아 국회 사무처에 이틀치 세비 반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이 금액은 고스란히 국고로 환수된다.

뉴시스

국민의당 “신임의장단, 일하는국회 만들기 최적임자”



“국회의사당 내 타협문화 꽃 피우는 데 헌신 기대”

국민의당은 9일 20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과 관련, “여야 3당에서 골고루 선출된 이번 신임 의장단은 사회적 난국 상황에서 높은 경륜과 탁월한 능력으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최적임자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국민들은 역대 어느 국회보다 일찍 개원하는 이번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감이 높고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하는 신임 의장단은 입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협치를 하라는 민심의 요구를 잊지 않고 국회의사당 내에서도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꽃 피우는 데 헌신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사회

대구광역시일보

2016년 6월 10일

금요일 4

대구 자동차 부품 공장 火... 1시간만에 진화

공장 내부 250㎡와 각종 공구

등 불에 타 4886만원 상당 피해

9일 오전 4시1분경 대구 달서구 대천동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불이나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내부

250㎡와 각종 공구 등이 불에 타 4886만원(소

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불이 나자 대구 강서소방서는 소방차 22대와 소방관 62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내부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는 공장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최윤희 기자

쌍용자동차주식회사
60개월 전차중 합부가능
중고차 고가매입 (지역모집) (사전예약)

영덕영업소/소정 방대운
3610 경북 영덕군 영해면 영덕로 1844
대표전화 : (054)732-9400
휴대폰 : 010-9169-3232



대구시 버스노선 조정 10개월... 시민 불편은 여전

일부 지역 배차시간 더 늘어나거나 구간 변경사실 조차 몰라 불편 초래

대구시가 버스노선 조정을 시행한지 10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끊임없이 이어져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1일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맞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간 환승체계

구축과 교통사각지역 신규 노선 신설을 위해

시내버스를 대폭 감차하고 구간변경에 나섰다. 또한 지난 2월에는 버스운영관리시스템(BMS)과 교통카드 이용자료, 5개월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시내버스 8개 노선의 구간 부분변경과 연장, 운행대수 조정 등을 재차 시행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배차시간이 더 늘어나거나 시민들이 새롭게 실시한 구간 변경사실 조차 몰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대구 동구 주민 박승현(27) 씨는 "매번 승객들로 버스가 가득 차 앉아서 이동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며 "3호선 개통으로 북구와 남구 등 타 지역구는 교통이 더 편리해졌을지 모르겠지만 동구는 버스가 줄어 오히려 불편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달성군 다사읍 주민 장명자(52·여) 씨도 "배차시간이 늘어나 한 번 버스를 놓치면 15분 이상 기다리기 일쑤"라며 "겨우겨우 버스를 타도 도시철도 환승을 하려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쳤다.

대구시는 지난해 6월부터 버스노선 조정에만 따른 민원과 불편사항을 접수받는 관련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9일 현재 해당 사이트에는 총 454건의 민원이 쇄도했지만 대구시는 "등록된 개선의견에 대해 별도의 답변은 하지 않는다"라는 공지를 밝혀 사이트 자체가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류규하 대구시의원은 "시내버스를 감차하고

노선을 전면 개편해 버스이용객이 감소했다"며 "감차를 원상복귀하고 필요하다면 증차를 해서라도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체계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버스노선 조정과 증편을 원하는 민원인들의 전화는 매일 걸려오고 있지만 노선 재조정에는 대한 대구시 차원의 논의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경북내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학교 62곳

경북교육청,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전수조사 중간 결과 발표 기준치 초과 학교 운동장 사용 금지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전국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

고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의 운동장 사용을 금지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도내 초등학교 86개교, 중학교 25개교, 고등학교 49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161개 학교이다.

조사 결과 95개 학교 중 62개 학교에서 납성분이 기준치(90mg/kg)를 초과했으며 33개 학교는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이들 62개 학교에 대해 우레탄 트랙 개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운동장 출입을 금지하고 학생이 우레탄 트랙에 접촉하지 않도록 전면 차단할 한 경우에 한 해 운동장을 사용토록 조치했다.

또한 재검사 등의 사유로 아직 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학교에 손씻기, 우레탄 트랙 접촉

금지 등 학생 행동요령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용에 유의하고,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운동장 사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검사 결과를 경북교육청 및 학교 누리집에 공개해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학생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체육관,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등 학교 자체 체육활동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이달 말 이후 교육부, 문체부 등과 협의해 개보수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전면 개보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규 기자

대구경찰 '북한찬양' 범민련 조직원 자택 압수수색

북한 찬양하는 내용 담은 이메일 등을 보관한 혐의

대구경찰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 등을 보관한 재야단체 조직원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대구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 등을 보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재야단체 조국통일범민주연합(범민련) 대구경북지부 조직원 B(51) 씨를 내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 등을 자신의 컴퓨터에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내사를 진행했으며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9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대구 북구 B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B 씨의 컴퓨터 등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 등의 증거물을 압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B 씨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혐의에 대한 사실을 확인 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아직 정확한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B 씨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사과할께" 지인 불러내 흥기 휘두른 50대 검거

경찰에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후 사과하겠다고 지인을 불러내 흥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다툼 것을 사과하겠다고 지인을 불러 낸 뒤 흥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이 모(50) 씨를 검거,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10분경 대구시 달서구 한 식당 앞에서 지인 최모(58) 씨에게 흥기를 휘둘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오른쪽 등과 허벅지)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50분경 술에 취한 채 최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주먹을 휘둘러 쌍방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씨는 경찰에서 풀려난 뒤 "사과하겠다"며 최 씨를 불러 낸 뒤 만취상태에서 최 씨와 다투다 식당에서 가져온 25cm 길이의 흥기를 최 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 씨와 현장에 있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윤희 기자



단오맞이 즐거운 씨름왕 선발대회

단오인 9일 경산 자인의 계정승 씨름장에서 열린 '제39회 경산 자인 단오제 씨름왕 선발대회' 여자 -60kg급에 참가한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다.

문화융성
관람에서 시작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은
범죄행위이며,
미래까지도 갇히게 됩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
재산은 물론 행복, 꿈, 미래까지 영영 못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보다
건강한 스포츠를 즐기세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한체육회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불법도박은 이용자도 함께 처벌받는 범죄행위이며, 불법 사행행위를 신고(☎1855-0112)하면 최대 2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북

대구광역시
2016년 6월 10일
금요일 6

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이강덕 포항시장은 10일 동해면 도구리 해변대동문 앞에서 열리는 '동해 해변대 동문 연결도로 개통식'에 참석한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10일 오전 경주제일교회에서 열리는 '2016 보훈가족 위로회'에 참석한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10일 오전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에 참석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10일 오후 예주회관에서 공연되는 창작뮤지컬 '신대호'를 관람할 예정이다.

울진군, 관광마케팅 홍보 '박차'

울진군은 9일부터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32회 한국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 홍보에 나섰다.

한국국제관광전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이번 한국국제관광전은 총 60여 개국에서 500여개 관광관련 기관과 업체가 참가해 홍보할 예정이다.

울진군은 '제6회 울진위터피아페스티벌'의 집중 홍보와 성류굴, 불영사, 금강송 소나무숲길 등 울진의 관광자원과 더불어 6월부터 시행되는 울진여행 스탬프 투어 등 관광 상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본사 인사

편집국 지방부
△ 김형삼 부장(울진 담당)
의원면직
6월9일자

강구일번지 공인중개사 매물접수현황

영덕군, 강구면, 영해면 등
동해안 모든 지역 **당문의하세요**
최선을 다해 선별해 찾아 드립니다.
TEL. 054734-8989 / 010-6767-9997
대표 황성학

이희진 영덕군수, 영덕중·고 모교 초청 특강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 8일 오후 영덕중·고등학교(교장 김문식)에서 학생 및 교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요동저라, 미래 영덕의 주역들이여!'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

쳤다. 이번 특별강연은 개교 80주년을 맞이한 영덕중·고등학교의 초청으로 마련됐다. 이번 강연에 특별 초청된 이희진 영덕군수

는 영덕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본교 동문으로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중고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청소년기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목표를 정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했다. 김승건 기자



포항시, 강소기업 특별시로 성큼

'Creative(창조) 포항기술장터' 특허기술 이전 등 기업교류 활기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강소기업 육성 컨트롤타워 역할 '톡톡'

포항시는 9일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성과인 특허기술을 희망기업에게 이전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2회 Creative 포항기술장터'를 개최했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부문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기술사업화 장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와 포항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행사는 특허기술을 개발·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대학과 연구기관을 비롯해 특허기술의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기업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제노랩의 특허기술을 미래포항테크와 ㈜에코드포레 등의 기업에 특허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계약 체결과 함께 기술이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나눔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에서는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특허기술을 이전받는 기업에 대해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혀 기



업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민선6기 들어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구조 다변화와 경제 활성화를 시정목표로 하는 포항시와 포스코가 힘을 합쳐 전국에서 유일한 민간주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난 2014년 12월 문을 연 이후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이전해 주는 기술사업화 장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5개 기업에 28개 특허기술

이전을 지원했으며 이 중 지역의 H사는 이전 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한 설비를 해외기업과 14억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기술장터를 통해 기업이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절감과 전문 연구 인력 채용과 같은 부담을 해결할 수 있어서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기업들은 물론 타 지역의 기업들도 포항의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용승 기자

영덕군, 본격적인 영농철 맞아 순회 영농기술지도

주요 작물 영농 기술 상담, 현장 지도



영덕군은 본격적인 영농기인 6월에 농가에 적재적소에 활용할 시기별 맞춤 영농지도를 위한 현장 영농순회지도 2개 팀을 구성해 주요 작물에 대한 영농 기술 상담 및 현장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통기술과 영농 순회 기술지원팀은 새로운 영농 기술 보급 및 정보전달은 물론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농업인과의 상호 유기적인 교류로 현장에 가장 효율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초점을 맞춰 현장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작물의 생장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6월을 맞아, 영덕군의 주요 작물별 양분 및 포장 수분관리 요령 등 작물의 품질과 가장 밀접한 재배요령 지원은 물론, 현재 영덕군의 특화 품목으로 육성중인 해방풍과 새소독 작물로 점차적으로 재배면적이 늘고 있는 시설 배론 등에 대한 현장 지원도 강화, 병해충 관리와 새로운 농업 기술 전파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김승건 기자

한울원전, 온배수 이용

양식어패류 방류행사 가져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부는 9일 울진군 북면 석호항에서 이희선 본부장, 김용태 울진소방서장, 정태영 죽변수협 어촌계장협의 회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배수 이용 양식 어패류 방류행사'를 개최했다.

원전운영종료배양장에서 원전 온배수로 양식한 참돔 치어 10만마를 석호항 외해에 직접 방류했고, 전복치패 3만마는 잠수부들이 복면 및 나뉘어준계 암반에 부착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희선 본부장은 "앞으로도 한울원전은 해양환경에 적합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량 어패류를 선정·방류해 황금어장을 만들고, 어업인과 열린 소통을 통해 동반자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학교 주변 유해환경개선

월성·유림초등 주변 범죄예방 디자인으로 위해요인 완전 제거



경주시는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사업인 '2016 경북도 토탈 공공디자인' 공모에 선정돼 월성초와 유림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길벗가로 유해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경주경찰서 범죄 안전관련 데이터 분석결과와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이 지역은 초등학교와 주거·상업지역이 혼재돼 있고 범죄에 취약한 아동 및 보행약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담장이 낮고 골목이 어두워 상시 불안한 환경에 노출돼 범죄 우려가 높은 곳이다.

시는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셉테드(범죄예방 디자인) 기법을 바탕으로 보안등, CCTV 설치, 시설물 정비와 낮고 노후 된 울벽·담장 골목을 밝고 산뜻한 색상으로 바꾸어 범죄유발 환경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범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위환경을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 경찰서, 초등학교, 전문

가 등 민관 거버넌스 개념을 바탕으로, 주민 설명회와 참여방편 등 기본디자인 계획 수립 단계부터 최종단계까지 전 과정에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해당 시범사업의 완성도와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며 6월까지 8억원 정도 디자인 및 시설설계를 완료하고 10월 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김현국 도시디자인과장은 "앞으로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도심환경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것에도 중점을 뒀 청소년과 노약자들의 위해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더욱 더 확장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용한 기자

세계속의 울릉, 명품 특색 관광심 조성!

울릉군 Korea Sparkling

www.ulleung.go.kr

울릉도·독도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여행

천혜의 자연과 민족의 혼이 살아 숨쉬는 곳!
울릉도·독도로 오세요.

Ulleungdo·Dokdo Gyeongsangbuk-do, Korea

경북

대구광역시

2016년 6월 10일

금요일 7

경산 영천 청도 칠곡 고령 성주



최영조 경산시장은 10일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제8회 지적 발달장애인 자기권리주장 대회 기념식'에 참석한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10일 오후 지역내 친목모임인 63회로부터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기탁받는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10일 고령군청 대야마을에서 '2016 경북도민체전 해단식'에 참석한다.

청도군, 2016 농산물 공판장 관계관 간담회

오는 14일 농산물 공판장 개장



청도군은 8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청도군지부장, 공판장 운영 농협장, 청도군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농산물품질관리원, 중도매인, 경매사, 농가 대표 등 농산물 공판장 관계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농산물 공판장 관계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오는 14일 농산물 공판장 개장을 앞두고, 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적정가격유통, 판매 및 홍보를 통한 이미지와 경쟁력 제고, 농가의 소득 증대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농민이 정직하게 생산한 우리군 농산물이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속박이등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적정가격 판매를 위해 가격 담합 근절에 대한 중도매인, 경매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생산자, 중도매인, 농협이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해 우수한 우리군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용규 기자

성주군 대가면 '내 집, 내 가게 앞은 내가 청소하자'

대가면 직원, 기관단체, 주민 동참

성주군 대가면에서는 3월부터 매월 둘째 수요일 '내 집, 내 가게 앞 5분 쓸기 운동'을 실시

하고 있다. 8일 오전 옥련 1리에서 직원과 기관단체 및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가지정소를 실시했다.
대가면사무소에서 대가우체국을 지나 대가

보건지소까지 시가지를 청소함과 동시에 각 상가에 '내 집, 내 가게 앞 5분 청소하기, 종량제봉투 사용 생활화' 등을 홍보했다.

이병식 대가면장은 "앞으로 각 마을로 '내 집, 내 가게 앞 5분 청소하기' 운동을 확대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함께 클린 성주를 만들자"고 협조를 당부했다.
박노균 기자



칠곡호국평화기념관-대구보훈청, 업무협약 체결

기념관 방문해 추모·체험·교육이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

칠곡군시설관리사업소(소장 박상우)는 대구지방보훈청(청장 오진영)과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8일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서 박상우 칠곡군시설관리사업소장과 오진영 대구지방보훈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한 나라사랑교육의 지속적인 운영 △청소년 체험활동 진행을 통한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운영 활성화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오진영 청장은 "6·25전쟁 당시 최대 격전

지였던 이곳 칠곡에 자유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념관이 건립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며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청소년을 비롯한 온 국민이 국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소장은 "기념관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방문해 추모·체험·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영천시 찾아가는 아웃리치 활동

지역사회의 관심 유도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

영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8일 영천강변공원 및 청소년 밀집지역 일원에서 영천경찰서, 영천교육지원청과 합동 아웃리치 활동을 실시했다.

늦은 밤 집을 나와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고, 학교폭력·비행 등 각종 청소년 범죄도 심각해진 요즘, 지역사회에 관심 유도 및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이 활동을 마련했다.

아웃리치는 가을 청소년을 조기 발견해 가

정 복귀를 돕거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구호활동이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게도 진로탐색·성격유형·스트레스 등 심리검사 및 거리 상담을 제공했으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홍보물 등을 배부, 참여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최영국 영천시청소년지원센터장은 "사회 안전망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노력과 실천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로 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만 기자

영천시, 휴(休)~'부담 없어지는 날' 이유 있네!

하위직원 창의적 업무 수행, 월1회 금요일 부서장·담당 연가 실시

영천시는 이번달부터 매주 금요일을 '부담 없어지는 날'로 운영한다.

'부담 없어지는 날'이란 부서장·담당이 한 달에 한 번(금요일) 연가를 실시, 하위 직원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자발적,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관리능력을 키우며 샌드위치 신세인 과장·담당(5·6급)들에게도 한 달에 한번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상·하위 직원 모두의 부담이 사라지게 하는 날이다.

영천시의 경우 2014~2015년 평균 연가일수가 5.4일로 매우 저조한 편이며 부서장의 경우는 평균 4.6일로 분기 1일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사실상 하계휴가

기간에 편중돼 있어 하계휴가를 제외하면 거의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평소 유연한 공직문화와 근무혁신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져 온 김영석 시장은 지난 해 5월부터 월, 수, 금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 자기 개발을 위해 야근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가족사랑의 날'과 연계,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사고역량 향상을 위해 '부담 없어지는 날'을 운영한다.

'부담 없어지는 날'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등 민간으로 확산시킬 긍정적인 면과 담으로 매년 연말 미사용한 연가에 보상에 주던 연가보상비도 부서장·담당 230여명을 기준으로 2억 이상 절감할 것으로 예상돼 1석 3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만 기자

고령군 귀농귀촌, 미래농업을 리딩하다

귀농·귀촌 일자리 창업박람회 참가

2016년도 귀농·귀촌 일자리 창업박람회가 '귀농귀촌 미래농업을 리딩하다'란 의제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SETEC(서울무역전시1, 2, 3관)에서 개최됐다.

고령군에서는 '고령으로 귀농한 사람들 모임'(일명:고귀한 사람들) 회원과 귀농관련 농업인과 공무원 등 30명이 참여했다.

작년 박람회 참관에 이어 올해에도 고령군 귀농귀촌 상담부스 1개와 귀농인 생산 가공 농산물 전시판매장 1개소를 운영하면서 고령군이 귀농·귀촌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멘토제 및 현장코디 운영 등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상담을 실시했다.

한편 농산물 전시·판매에는 개진감자 영농조합법인에서 노지감자 출하에 맞춰 노지 햇감자를 고령秀연군(허영철, 귀농 4년차)의 건연군을 출품 했으며 또 지역 소득작목인 대가야(장현덕, 귀농 3년차)의 생표고버섯과 덕곡(장병두, 귀농 4년차) 햇고사리와 강황, 대



가야(박대식, 귀농 3년차)의 아카시아꽃 등도 전시해 관심을 받았다.

3일간 일정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는 농업·농촌 6차 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성공 사례 등을 얻을 수 있었는데 특히 귀농·귀촌에 대한 토크쇼, 다양한 소재를 멘토에게 듣는 소그룹 강의, 마이스터가 들려주는 품목별 기술경영상담 등에 사람들이 몰려 들었으며 첫날인 3일에는 고령군 귀농인 멘토링 교육생 20명이 박람회장을 참관해 많은 정보와 사례를 수집하기도 했다.
신해관 기자

달성군 공고 제2016-75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열람 공고

도시개발구역(중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 해제 대상지역인 논공을 남리, 현몽면 부리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 2016.6.10. ~ 6.29. (토·공휴일 제외 14일간)
-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달성군 농공을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청 도시과(☎668-2812~4, FAX 282-7527)
-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위 치	면적(㎡)	제한사유	제한대상행위	제한기간	비고
계	747,960				
논공 남리 546-1번지 일원	705,860				
현몽 부리 181번지 일원	42,100	도시개발구역(중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개발 방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건축법」 제2조 제항 중 개축, 재축, 대수선은 제외 * 토지 분할은 제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간	

○ 제한해제 : 국토계획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제한사유가 없어진 경우, 또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용도지역 확정 시

4.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2016. 6.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www.kepco.co.kr

전기안전을 실천하는 생활! 행복한 삶을 위한 약속입니다!

전기안전을 실천하는 것,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입니다.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작은 실천, 전기안전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대구경북지역본부

KEPCO

한국전력

경북

대구광역시

2016년 6월 10일

금요일 8

구미 김천
문경 상주
군위 의성



남유진 구미시장은 10일 오전 인동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국가권익위원회 영무예다움APT 민원조정회의에 참석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10일 군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18회 군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식에 참석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10일 단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리는 '공동체의식 함양 순회교육'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의성군, 유해야생동물 포획 기동구제단 운영... 농작물 지켜낸다

의성군은 최근 농민들로부터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들이 모, 고추, 콩, 자두, 사과, 고구마 등 애써 짓고 있는 농작물을 해친다는 여론을 듣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기동구제단'을 발족시켜 야생동물 퇴치작전에 돌입했다.

지난 7일 발족한 기동구제단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북 수렵협회의성지회 등 4개 수렵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범엽사 18명을 선발, 의성경찰서와 협의해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8개 전 읍면을 대상으로 설정, 포획활동을 벌이게 된다.

구제절차는 피해를 입고 있는 농업인이 해당 읍면사무소(주민생활지원계)에 신고하면 읍면의 확인을 거쳐 군청에서 '대리포획 허가'를 내주게 된다. 대리포획 허가를 받은 해당지역 구제단은 즉각 현장에 출동, 농민의 애간장을 태우는 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된다. 포획한 동물은 의성군과 기동구제단이 협의해 수렵인 자가 소비, 피해농민 무상제공, 소각·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며 상업적 거래·유통 등 불법행위는 금지된다.

의성군과 의성경찰서에서는 총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7일 오후 3시 의성경찰서 별관 2층회의실에서 구제단원 18명에 대해 총기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총기 사용시간이 24시간 이루어 지므로 밤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 산과 연결된 농경지 출입, 등산 시 눈에 잘 띄는 복장 착용, 일몰 후에는 가급적 입산하지 않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재성 기자

의성군 단촌면, 공동체의식 함양 읍면순회 교육 실시

의성군은 지난 7일 단촌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단촌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6 공동체의식 함양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안평면과 가음면 교육에 이어 단촌면

이장 및 사회단체, 주민 등 약 90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식 회복'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공동체의식 부족 사례를 알아본 후 공동체 의식을 함양

하기 위한 사례 위주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이번 공동체의식 함양 읍면 순회교육은 연말까지 읍면별 2회 정도 순회 개최하며 개인 주의를 팽배해 있는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성 기자



문경·예천 농어촌공사 통폐합 결사반대

문경시,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예천지사 통폐합 철회 강력 촉구 나서

문경시는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와 예천지사의 통폐합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문경시는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의 통폐

합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문경지사가 예천지사에 통합되는데 대한 절대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경시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민들이 농업용수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살기좋은 농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사의 이익이 아닌 농민의 편익과 농촌경제를 우선시 하는 공사의 설립 목적을 위배해서

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폐합 법적근거와 회의록 열람 등 자료를 즉각 공개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역 농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통폐합 계획은 경천함이 위치한 지역주민의 정서와 피해,업무의 효율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문경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용구 기자



GAP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의 중심지 상주시

상주시가 수질오염 및 토양중금속 등 농작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전먹거리 확보에 발 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1억7000만원(1300ha)의 예산을 지원해 토양·용수검사에 따른 관리체계 구축지원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사업은 토양·용수에 대한 분석과 컨설팅 지원으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 소비자의 신뢰제고 및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상주시는 이외에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농가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지원, GAP시설 보완사업, GAP인증확대를 위한 농가홍보 및 교육 등 안전먹거리 생산공급을 위해 다양한 사업지원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은진 기자

상주시, 공기 쫓고 떡메치고... 단오 세시풍속 재현



제6회 단오세시풍속 전통혼례식 행사 열려

상주시는 9일 상주향교에서 성균관여성유도회상주지회(회장 이성애) 주관으로 유림, 학생, 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6회 단오세시풍속 및 전통혼례식'을 가졌다.

혼례를 치르지 못하고 생활을 하던 다문화 부부에게 상주향교사회교육원 김명희 원장의

집례로 전통혼례 절차에 따라 혼례를 올려 많은 하객들로 부터 축복을 받았다.

단오 세시풍속 전통놀이에는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켜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나가 고차 추진되는 행사로 이날, 장포물에 머리감기, 공기 쫓기, 떡메치기 등 세시 풍속을 재현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 접하기 힘든 떡메치기,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체험하면서 즐거운 모습들이었다.

이성애 여성유도회장은 "고유의 풍습들이

빨리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현실에 안타깝다"며 "단오 세시풍속을 비롯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많은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전통문화 알리기에 많은 열정을 쏟을 계획"이라며 행사 소감을 밝혔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단오 세시풍속 및 전통문화를 시민과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전통문화 계승·발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군위군, 삼국유사아카데미 방송인 김미화 초청특강 개최



군위군은 지난 8일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군민, 공무원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인 김미화씨를 초청, 2016년 삼국유사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미화씨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일상과 긍정적인 마인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강연 내내 활기찬 웃음을 선사했다.

이날 군위군수는 열정적인 강연을 펼친 김미화씨에게 군위군의 문화장달을 위한 공헌에

감사하는 뜻으로 군위군민을 대표해 명예군민패를 수여했다. 이에 김미화씨는 "군민의 뜻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힘쓰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군위삼국유사아카데미는 오는 7월 6일 김오곤 한의사, 8월 30일 헤민스님의 초청강연을 개최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자기개발, 문화,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명강사를 초청, 수준 높은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박재성 기자

www.gbmng.go.kr

자연의 깊은 울림, 마음의 깊은 감동

대한민국 힐링의 시작

문경

관광안내센터 문경새재드림공방서 | 054-550-6414

한국관광 100선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문경 새재 관광지 1위 선정!

이제껏 보지 못한 문경의 숨겨진 아름다움

이제껏 보지 못한 문경의 숨겨진 아름다움

이제껏 보지 못한 문경의 숨겨진 아름다움

경북

대구광역시
2016년 6월 10일
금요일 9

경북도 도시계획과·영양읍사무소, 농촌일손 도와

경북도청 도시계획과와, 영양읍사무소는 8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양읍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농촌 일손돕기는 평소 농가주와 배우자가 지병을 앓고 있던 영양읍 양구리 김모씨 농가가 일손부족으로 영농시기가 늦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북도청 도시계획과

와 영양읍사무소 직원 20여명이 비가 오는 가운데 고추밭 5300㎡에 대해 잡초발생 억제를 위해 헛골 비닐밀집 작업을 실시해 노동력 절감에 일조를 했으며 농민인과 하나되는 농촌 사랑 운동을 실천했다. 또한 사회복합시설인 영양군립요양원을 찾아 위문품 전달 및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권윤동 기자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청송 영양

안동, 환경부 공모사업 참여 사업비 702억 확보

물 순환 선도도시 410억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292억 확보

안동시가 환경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7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는 환경부에서 공모한 '물순환 선도도시'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공모사업에 참여해 선정되면서 각각 410억원과 292억원 등 총 70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최근 도시개발과 기후변화에 따라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 면적이 늘어나고, 다양한 토지이용으로 물순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도시침수와 하천건전화, 도시열섬, 열대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물순환 선도도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빗물 저류조 설치를 통한 배수조절과 인공습지, 투수성 포장, 투수블록, 침투도랑, 침투측구,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수목여과박스 등 물순환 개선사업을 통해 생태를 회복시키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10만명 이상 전국 지자체 7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물순환 도시에 적용되는 저영향개발기법(LID)이 생태도시 전환의 신산업으로 알려지면서 도시마다 물순환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등 경쟁이 치열했다.

환경부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고 4월 서류평가에 이어 지난달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안동시와 김해시, 광주·대전·울산광역시 등 5곳이 최종 확정됐다.

물순환 선도도시 선정에 따라 내년부터 1단계 2020년까지 410억원 투입하고 이와 별도로 환경부와 2026년까지 총사업비 1400억원의 물순환 선도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이달 중 환경부와 물순환 선도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물순환 조례와 TF팀 구성 등 제도과 조직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물순환 선도 사업으로 시정청사와 문화의 거리, 탈출공원, 구시장·음식의 거리 공

영주차장과 시가지 인도 등 5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정 청사에는 옥상을 녹화하고 빗물통과 투수성 포장, 침투도랑, 식생 체류지를 조성해 물순환 청사로 꾸미고, 탈출공원에는 대형 빗물 저류조, 투수블록, 물순환 공원, 침투도랑, 나무화분여과상자 등을 마련, 물순환 공원으로로서의 역할과 시가지 물 공급원의 역할을 함께 하게 된다. 안동문화의 거리에는 투수성 포장과 잔디거리, 실개천 및 연못이 있는 물순환 거리로, 구시장·음식의 거리 공영주차장과 시가지 인도에도 투수성 포장과 침투도랑, 나무 화분 여과 장치 등을 조성한다. 이 같은 사업은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물순환 선도도시'와 함께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공모사업에서도 29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매년 반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태화동 일대 하수도 정비 사업을 위해 환경부 공모에 응모해 '2017년 하수도 정비 중

점관리지역'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하수도정비대책과 시설설계 용역 등을 거쳐 내년부터 태화동 일대 배수구역 0.797㎢에 292억원을 들여 하수저류 시설과 하수관로 정비, 빗물받이 설치 등을 통해 원활한 배수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2년에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중구동과 명륜동 일원에 482억원을 들여 사업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태화동 일원이 침수피해로부터의 위험을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지역의 생태를 회복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700억원이라는 거액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하수도 등 생활환경기초 시설을 개선하고 물순환 개선사업을 추진해 '물순환 도시 안동' 패적하고 살기 좋은 생태·문화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윤구 기자



장욱현 영주시장은 1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KT빌딩에서 개최되는 '2016 영주 선비포럼'에 참석한다.



권영택 영암군수는 10일 오전 영암군민회관에서 개최되는 '2016 농업인 화합 한마음대회'에 참석한다.

봉화군 로컬푸드 직판장 개장 박차



봉화군은 생산농가에게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게 될 '봉화군 로컬푸드 직판장'이 개장에 앞서 9일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갔다.

2014년도 공모사업인 지역공동체소득육성사업에 선정돼 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봉화군 로컬푸드 직판장' 운영은 지난 7일 봉화군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사)봉화군농어업협회의소(회장 배동완)가 운영하게 된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채소류와 농산물 가공식품을 진열 판매할 로컬푸드 직판장의 개장을 앞두고 올해 초부터 로컬푸드 아카데미, 품목별 단체 구성, 그리고 출하약정을 맺은 120여 농가가 입점할 품목의 파종과 생산에 분주하다.

도로변에 위치해 접근성이 양호하고, 청량산, 수목원 관광객과 한약우프라자 이용객, 대량소비처 확보와 꾸러미 택배 등 다양한 사업경영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박노욱 봉화군수는 "봉화군 로컬푸드 직판장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유통체계를 활성화해 FTA 극복은 물론 봉화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상기 기자

영주 소백산 귀농드림타운 개관

전국최초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귀농귀촌의 꿈 현실로



해 2만9900㎡ 부지에 체류형 주택 30세대(원룸 18세대, 투룸 12세대), 교육관, 텃밭, 실습농장, 시설하우스, 농자재보관소, 퇴비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소백산 귀농드림타운은 2015년 1월 착공, 2016년 4월말 준공하고 6월 10일 개관식을 갖게 됐다.

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가 논밭 일구며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막상 실현이 쉽지 않은 전국의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체류하면서 실습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One-Stop 시스템을 통해 그 꿈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귀농·귀촌을 꿈꾸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21세대가 귀농과정 입교를 확정했으며 입교희망자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귀촌 과정은 투어형식으로 1박2일, 2박3일, 4박5일 등 수시로 운영하며, 귀농과정은 영농시기를 감안, 3개월 과정을 6월-8월(1기), 9월-11월(2기)로 나눠 올해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본격적인 운영은 2017년 영농이 시작되는 3월부터 전과정(단기, 3월, 10월)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영주시는 개관식에서 삼성SDI 울산사업장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는 21일-23일(2박 3일) 삼성 SDI 울산사업장 퇴직예정자 40명을 대상으로 단기교육과정에 들어간다. MOU에 따라 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단기 교육과정과 여름캠프를 운영하며 향후 영주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할 경우 전원마을조성 및 귀농정착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상기 기자

청송군·한식재단 업무협약(MOU) 체결



청송백자·지역문화관광
산업발전 도약의 계기마련

청송군과 한식재단(이사장 윤숙자)이 8일 오후3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4층 한식체험관에서한식 및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4월 11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K-Style Hub 한식문화관'이 개관됨에 따라 향후 청송군이 한식재단과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청송백자 홍보와 지역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동협

력과 교류를 지속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현재 한식문화관내 설치된 청송 백자홍보전시관 운영 및 청송백자 발전을 위한 상호 공동 홍보 마케팅 사업 등 한식 산업과 지역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과 교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K-Style Hub 한식문화관은 한류체험과 의료관광, 한국전통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국관광의 융복합 콘텐츠 전시장으로 여기에 청송백자 달항아리를 비롯해 접시와 찻잔 등 유백색의 아름다운 생활도자기 100여점이 지난 4월에 전시된 바 있다. 김윤구 기자

안동풍년민속단오제 열려

시민과 함께하는 안동풍년민속단오제 행사가 9일 길안면 새마을공원에서 열렸다.

길안면단오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198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26회째를 맞아 단오제의 오랜 역사와 함께 알찬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이번 단오제는 풍물패의 길놀이로 시작으로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고유제를 올리며, 본행사로 씨름, 그네뛰기, 줄다리기 등의 민속놀이가 열렸다. 특히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열리지 못했던 아쉬움을 달래고자 난타공연과 풍악놀이 한마당 등으로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마련됐으며 부대행사로 일일 찻집과 떡매치기 체험, 다문화 가족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김윤구 기자

물맑은, 고장 정직한 농부

예천 Yecheonseum

새움

예천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Clean 예천

